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교원대학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본때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 교육과학전시관, 교육조종실, 다기능교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과 교수교양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968년 9월에 창립된 평양교원대학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교수교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 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평양교원대학이 지난 기간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교양프로그램들과 전자교양자료들,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개척한 수많은 교재들을 집필하였으며 학생들의 자립적사고활동에 기본을 두고 과학적으로 강의할수 있게 교육에측기술을 도입한것을 비롯하



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교육혁명도 교육과학의 성과를 떠나서는 기대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3D화상입력장치와 3D인쇄기, 전자칠판을 비롯한 첨단 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 관리운영설비들을 갖춘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교육사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

이며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사람의 지적두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인 어린시절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현실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달라지며 공고해진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인 교원대학들을 중시하고있으며 그래서 평양교원대학을 품을 넣고 개건현대화하였다고, 각 도들에서도 이곳을 본보기로 하여 교원대학들을 잘 꾸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

리는것처럼 교원의 자질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교원진영을 적격자들로 잘 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능력과 응용능력, 자립성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과정안을 개선완성하며 실험실습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사업을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와 함께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들의 학습열의를 적극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교육조건과 환경은 인재양성의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하시면서 대학, 학교들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리는것과 함께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교원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 학생들이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정세 전환을 주도하는 탁월한 령도

시대가 달라지었다. 조선은 국가핵무력완성으로 명실상부한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었다.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평화수호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공화국은 북남관계 개선을 주도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

조선의 높아진 위상에 세인

이 선망의 눈길을 보내고 올해 주동적인 제안과 발기로 북남관계 개선을 주도해가는 공화국의 대범하고 야망있는 결단,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온 겨레가 공감하고 있다.

민족의 힘을 최강으로 다져주시어

강국을 갈망해온 우리 민족의 세기적 념원은 현실이 되었다. 폭제의 핵을 마스는 자위의 핵을 가지었다. 세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이래 조선민족처럼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 받아온 민족은 없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때 일본인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본 민족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부터 년대와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집요하고 악랄한 대조선적 대시정책의 발로이다.

조선반도를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대륙에로의 건능다리》, 아시아라는 《큰 고기덩이》를 잘라내는 《단검》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나 전 조선을 지배하려는 것이 예나지금이나 변함없는 미국의 국책이다.

미국의 폭제의 핵을 무력화하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결단코 병진의 기치 높이 드시고 국가핵무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었다. 자위적국방력을 질향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그이의 백철불굴의 정신과 무한한 창조

의 세계는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특대사변들이 다발적으로,련발적으로 이룩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핵무기병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적열핵무기의 개발전략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명안도 밝혀주시며 창조적힘과 지혜를 북돋아주시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로고에 의하여 초강력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이 울리게 되었다.

다중화, 다양화된 로케트를 비롯한 위력한 전략무기들에는 로케트개발의 길은 과학의 길이기에 전에 끝까지 가야 할 자주의 길, 혁명의 길이라고 하시며 주체식로케트개발방안과 연구중자도 주시고 개발자들과 한몸이 되시어 성공의 기쁨도 함께 나누시며 위력한 주체무기, 주체탄개발에 자신의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깊은 밤, 이른 새벽 가림없이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을 찾곤했으시며 주체무기의 탄생을 위하여 기울으신 그이의 애국헌신이 있어

공화국은 《3.18혁명》, 《7.4혁명》, 7.28의 패승, 9월의 대성공, 《11월의 대사변》과 같은 기적적인 다계단성공으로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의 존엄을 떨칠수 있게 되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오고 동방의 핵강국이 된 공화국의 위상에 세계의 객관적어론은 《조선이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한 조건에서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룩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었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중앙일보》, 《자유시보》, 《통일뉴스》 등 언론들은 《북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세계적군사강국이 되었다.》, 《미

자주의 신념과 뜨거운 민족애로

새해와 함께 조선반도의 정세는 화해와 긴장완화로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2018년 북남관계에서의 극적인 화해와 신뢰국면은 평양에서 열린 신년사와 더불어 열리게 되었다.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는 올해신년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는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유행을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

는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라 북의 편이라는 현실을 감수하게 될것이다.》, 《북미대결사는 북이 주도하여왔다. 오늘도 주도권을 확고히 북이 쥐고있다. 미국이 북에 끌려다니고있다.》고 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결단과 담력, 끝없는 애국헌신으로 마련하신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외세의 침략을 막고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민족자위의 보금, 민족만대의 안녕과 번영을 담보하는 더없이 귀중한 재부이다.

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과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조를 위해 북남양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이라고 하시었다. 민족애가 넘치는 그이의 따뜻한 말씀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울려 퍼질 때 온 민족이 크나큰 걱정과 충동으로 가슴들먹이였다.

의의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신년사의 그 한마

디 말씀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가 뜨겁게 어려있다.

그이의 심중에는 기나긴 세월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이 땅위에 통일강국을 건설하시려는 절절한 념원과 확고부동한 의지가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은 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혜불이며 통일조국건설의 리정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 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라고 하신것처럼 민족의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는 한 북과 남은 마음만 먹고 손잡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위한

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각계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라고 하신것은 민족적화해와 신뢰, 단합을 위한 그이의 도량과 포용력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확신케 하는것이다.

무진막강한 민족의 자위적 핵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참화를 막고 북남관계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주동적인 발기와 제안을 내놓으시고 북남관계개선을 주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새해벽두부터 북남사이에 화해와 신뢰, 단합과 통일의 열기가 높아지고있다.

북남사이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대화의 문도 열린 현 북남관계를 지켜보며 남조선언론들도 《김정은위원장의 의도대로 《한》 반도정세가 굴러가고 있다.》, 《김정은위원장이 오래동안 열어붙은 남북관계해빙의 물고기를 뒀다.》, 《김정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대표단과견을 밝힌 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남북관계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것으로 보인다.》고 평하였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흐름의 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쥐고계신다. 그이의 자주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으로 새날이 동터오고 그이의 천재적인 전략과 확고부동한 의지, 뜨거운 인덕으로 새해의 격동적인 날과 날이 흐르고있다.

동방에서 솟은 태양은 자주와 통일의 새 세기를 밝힌다. 본사기자 리 설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가 발표된 새해벽두부터 온 강도에 북남관계개선의 훈풍이 일고있다.

이 훈풍은 숭고한 민족애와 대범한 야망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시고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열풍으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사는 새해의 첫 아침 깜짝 놀라도록 기쁜 소식이 다음아닌 북에서 들려왔다고 하면서 북의 최고령도자님께서 신년사를 통하여 내놓으신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말그대로 다격적제안에 막혔던 가슴이 한순간에 뻥 뚫려지는것만 같았다고 하였다. 다른 한 동포는 《북남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지금의 꿈만 같은 현실들은 명실공히 북의 최고령도자님의 통일외의지, 적극적외 자사에 의해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다.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진심으로 마음쓰시는 북의 최고령도자님의 애국애족의 대응단이 아니였다라면 지금과 같은 사변이 도래할수 없을것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북남관계 개선문제를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해외동포들속에서도 《북과 남이 주도권을 쥐고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를 풀어나가자는 김정은위원장님의 호소는 조선민족 누구나가 공감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이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며 그 중심점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다.》라는 찬란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확고한 통일의지,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숙원을 성취해주실 탁월한

령수로 높이 우러르며 칭송하고있다. 이것은 단지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난날들을 통해 그이의 령도는 과학이길고 그이의 애국애족의 뜻을 따르는 길에 조국통일의 성업이 반드시 이룩된다는것을 절감한 겨레가 터치는 진정한 마음의 토로이다.

겨레가 통일에로 나아가자면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앞길을 밝혀주는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조선을 둘로 갈라놓고 오늘도 우리 겨레에게 대결과 분렬을 강요하는 침략세력이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완화되고 민족단합과 통일의 열기가 고조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은 무력중강과 북침전쟁소동으로 정세를 해마다 격화시키면서 전쟁위험을 몰아왔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라는 트럼프가 유엔총회의 무대에서 공공연히 공화국에 대한 《완전파괴》와 《절멸》을 부르짖어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핵을 만지작거리며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재난을 들씌우려 해도 자위의 억제력이 있어 감히 어찌지 못한다. 미국본토를 사정권안에 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개발하고 초강력수소탄의 장쾌한 퇴성도 올려 공화국의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이 땅의 평화와 조선민족의 운명은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이다.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미국의 침략책동을 제압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의 첫아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수 있는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따뜻한 신년사의 울림과 더불어 지금 조선반도에서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정세흐름은 절세의 위인이 계시어 자주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겨레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고성 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해의 뜻깊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새로운 통일애국의 품에 안겨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 길에서 삶을 빛낸인 사람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본사편집국은 민족단합의 길에 새겨져있는 가지가지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일부를 소개한다.

한평생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살해당한 사실에 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사람들과운데는 완고히 북의 인민들에게서는 중오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해방전 《림정》에서 활동할 때에도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레로를 서슴지 않았다. 그의 영향하에 《림정》에 의하여 살해당한 사실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사대로 하여 그는 당시 《레로의 두목》으로 불리울 정도로 민주세력, 특히 북의 인민들에게서는 중오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해방전 《림정》에서 활동할 때에도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레로를 서슴지 않았다. 그의 영향하에 《림정》

민족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어 (1)

극적인 인생 전환

과 기막히 통하고있던 동북의 민족주의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가는 청년들을 살해까지 하였던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해방전부터 화해할수 없는 반공분자였다. 그러나 위대한 주석님의 대해같은 도량과 포용력에 의해 초청장은 남조선의 《한국독립당》 당수 김구에게 전달되게 되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김구는 선뜻 받을 내짚지 못하고 주춤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란 민족은 안중에 없고 덮어놓고 민족주의자들을 경멸배척하는 사람들로 잘못 인식하고있었다. 의심과 동요와 번민속에 모태기면서도 민족분렬의 현실을 외면할수 없었던 김구는 자기의 비서를 먼저 평양으로 보내였다. 평양으로 가더라도 담보를 받고 가자는것이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이런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투

사》를 혼연히 만나주시였다. 정결석상에서 《투사》는 김구의 의사를 이렇게 말씀 올리였다. 《장군님, 백범선생이 평양에 들어와서 장군님과 만나겠는데 과거를 백지로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간단치 않은 요구조건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주석님께서 통을 지켜왔습니다. 적으나마 민족사에 흔적을 남긴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을 받아주시시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이라면 그가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겨오던것이였다. 그것은 김구와 동료들이 피어린 3.1운동을 계승하는것으로 자부하는 《림시정부》의 법통을 상징하는것으로서 그가 상해에서도, 머나먼 피난길에서도 그리고 수천리길에서도 애지중지 품고다닌 《옥새》맛잡이였다. 그것을 지금 제손으로 위대한 주석님께 올리겠다는것이였다. 그로서는 하나의 결단이였다. 그것은 파란폭절 많은 70고령을 넘긴 백범이 이제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념을 민족의 령수이신 위대한 주석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겠다는 인생전환의 선언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가 올린 인장을 보시던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사양하시면서 자신에게는 그저 인민대중의 두려운 신임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한없이 겸허한 품모에 더욱 감동된 백범은 그이이사야말로 우리 민족이 받들어나갈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마음속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그후 백범은 련공으로 돌아선 자기의 뜻을 지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한몸을 바치였다. 본사기자 류현 철

자주통일의 그날에 대한 겨레의 락관

절세위인의 새해 첫 현지도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고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공화국은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과 그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얼마전 새해의 첫 현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셨던 과학의 힘으로 뜻깊은 2018년의 한해를 승리적으로 이끌어가시려는 깊은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시려는

그이의 높이신 뜻이 구절구절 맥박치는 말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셨으면 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어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건설과 과학원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고 그 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서게 될 연봉호를 찾으시어 몸소 터전까지 잡아주시였겠는가. 2016년 새해의 첫 아침에는 신년사를 마치신 그 길로 진민학습의 대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페르드 끊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과학기술중시령도와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떠받들려 공화국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그것이 현실에 구현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와 전변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국방부문에서는 과학자들이 과학과 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각오와 열정을 안고 분발하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각종 핵운반수단과 초강력열핵무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 지난해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서도 전례없

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세계의 경제전문가들이 미증유의 잔학무도한 대조선제재봉쇄가 크지 않은 한 나라의 경제를 열백번도 더 질식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는 살인적인것이라고 평하며 우려하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자립경제의 기술적토대와 자급자족의 경제구조가 보다 완비되고 모든 부문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일대 생산적양양이 일어났다. 그속에서 현대적인 새 거리가 일떠서고 새형의 트랙트르와 화물자동차들이 대량 생산되어 공장과 협동전야들로 달려나가는 풍경도 펼쳐졌다. 가방공장, 신발공장, 화장품공장, 식료품공장들을 비롯하여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이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자기의 설비와 기술, 로력과 원료 자재로 만든 질 좋은 소비품들이 팡팡 생산되어 인민생활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게 되었다.

과학자들에 의해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이 육성된것으로 앞으로의 농사전망을 밝게 해주는 2017년의 과학기술성과이다.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령도가 얼마나 현명하고 큰 은을 내고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국가과학원의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과학자들

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당 단위의 일군들로부터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하여 기적같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미더운 과학자대군이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이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승승장구

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강화될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온데 있다고 하시면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우리가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력량과 그들의 명석한 두뇌가 있기에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다. 또한 그이의 령도를 성실한 땀과 탐구의 지혜로 받드는 수천수만의 과학자대군이 있는것으로 하여 조건은 강하고 최후승리의 아침은 밝아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전민이 첨단 과학 기술을 소유해 간다.

— 과학기술전당에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언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이 명언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 길에 인민의 모든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철저히 구현된 가장 과학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인민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를 인민들은 누구나 다 지지하고 받들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공화국 인민의 생명이다.

세상에 공화국 인민처럼 망국노의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한 인

민은 없었겠다. 해방전 공화국 인민은 간악한 일제의 중세기적억압과 식민지적억압에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죽어서 물결 곳조차 없었으며 온 강토가 하나의 큰 감옥이었다.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조선인민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체도를 세우 주시으로써 비로소 존엄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공화국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을 보여주는 노래 《사회주의의 지키세》에도 있듯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길은 공화국 군대

와 인민이 자주적인인, 자주적인 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그 길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억척같이 일떠서 사회주의체도를 수호하고 존엄을 지키었다.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는 길에 인간의 존엄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것이 인민들이 심장으로 체득한 철리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공화국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공화국 인민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행복한 생활과 앞날의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는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로 여기고있다.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최우선시되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체도에서 보람찬 삶을 향유하는것이 공화국 인민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밑에 육아원, 애육원들과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인민의 봉사기지들이 일떠서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활짝 꽃피고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열책동과 세계도처를 휩쓸고있는 자연의 재앙으로 하여 많은 나라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있다.

이와는 반면에 공화국에서는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보금자리가 나날이 늘어나 공화국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파시 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체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금지높은 현실이며 복받은 대지에 흘러넘치는 사회주의향기이다.

본사기자 김영춘

- 재도이철란드동포협력회가 칭송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사에 특기할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성취하시어 2018년 정초부터 북한

관계전환의 새로운 국면을 펼쳐가시는데 대하여 해외동포들은 경탄과 흥미를 금치 못해하고있다.

재도이철란드동포협력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위원장님의 지도력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단호함과 공격정신이라고 하면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난관을 강행돌파하는 대담한 공격정신이 그이의 혁명방식, 투쟁기질이라고 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은 이러한 공격정신으로 적대세력들의 체제와 압력을 정면돌파하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성취하시였으며 날마다 기적을 창조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또한 단호한 공격정신으로 북은 최근 몇년동안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세포지구축산기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과학기술시보당 등 수많은 대형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적인 경제제재속에서도 함경북도수해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려명거리라는 대규모거리개발을 매

우 빠른 속도로 완공하여 미국의 봉쇄가 무력함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김정은위원장님의 단호함과 공격정신은 핵시험을 미국이 미처 정신차릴새 없이 련이어 진행한 사실, 수십년에 걸쳐 시험발사한 량보다 더 많은 미사일들 1~2년사이에 발사한 사실, 수소폭탄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등 핵무력완성의 질적 발전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 사실 등 북미대결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조선의 《완전파괴》, 조선민족의 《완전절멸》을 꺼리낌없이 내뱉은 트럼프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라고 선언하시고 《화성-15》형 시험발사 대성공의 통장훈을 부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담력과 배짱에서 세계는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하신 김일성주석님과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겠다고 하시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강인대담한 모습을 다 시 보았다고 하면서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시야말로 온 겨레와 세계가 우러르는 만고의 명장, 해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려명거리라는 대규모거리개발을 매

본사기자



고마은 사회주의체도에서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

—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서 —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화해의 훈풍을 안아온 뜻깊은 신년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은 날이 갈수록 내외의 폭풍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신 후 긴장격화에로 치닫던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안에 대해 대서특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에 따라 최근 북남고위급회담이 마련되고 공동보도문도 채택됨으로써 내외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북남사이의 회담과 합의들을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그것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

데 열린 북과 남사이의 회담들과 여기에서 이룩된 합의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려는 공화국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제의에 의하여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기려는 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공화국은 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공명정대한 통일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정세흐름을 주도하여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은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애국 의지의 발현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 문제,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문제, 북과 남의 당국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문제 등은 현시기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반드시 들어줘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참으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천명된 북남관계대 전환방침은 이 땅의 평화와 민

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안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조치들이 취해지고있으며 북남사이에 팍 막혔던 대화의 문이 열리었다. 현실은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온 겨레가 그에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북남사이의 대화분위기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백마디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쳐 북남관계 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민족의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할 때이다.

지난 9일에 열린 북남고위급회담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북남대화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문제는 당국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이다. 공화국은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라는 립장을 천명하였

구태의연한 대결악습에 사로

잡혀 동족의 진정어린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대해 곡해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불신을 야기시키는 반통일행위에 매달리는자들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지금도 미국은 이 땅에 화해의 훈풍이 부는것을 아니꼬와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또다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남관계개선흐름을 가로막으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주동적인 북남관계개선노력을 지지하는 온 겨레의 통일열기는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도전을 압도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거족적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나갈것이다.

김 금 화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

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수 없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통괄당하게 된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다른 누가 대신해서 개척해주지 않는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외세에 놀리워 모 든것을 양보한탄에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의 존엄과 이익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민족의 운명이 수난에 처하게 되는 비극적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남의 나라와 민족을 희생시켜 저들의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외세는 오늘날 북남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꾀하고있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 전쟁과 평화가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맥 맥히 흐르고있는 민족정기는 자주를 앞세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민족자재의 힘으로 하루빨리 성취할것을 요구 하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를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튼튼히 들어주고 전면적화해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조 경 철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외세에 청탁하여 얻을것은 없다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자재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는것은 자기 민족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비굴한 처사이다.

외세에 의존해서는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없다.

우리 나라의 분열자체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나라의 통일이 70년이 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중요하게 외세의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책동에 기인된다.

동족보다 외세를 더 믿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와 공조하게 되면 민족내부에 불신과 갈등밖에 생길게 없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수 없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민족내부문제를 옹바로 해결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외세에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에 개입하여 저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야욕만이 있을뿐이다. 지금도 세

계를 둘러보면 제국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의해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존엄, 이익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례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민족공조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나온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세공조》, 《국제공조》 놀음이 북남관계에 초래한것은 민족분열의 심화였고 전쟁위험의 증대였다.

지난 시기 리명박, 박근혜역적정당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국제공조》를 구걸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추악한 사대매국행위와 대결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의 파국을 몰아왔다. 박근혜 《정권》이 떠들었던 《통일외교》라는것은 불순한 체제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어보려는 얼빠진 기도의 산물로

서 북남관계문제, 통일위업의 자주적성격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반공화국대결공조였다.

외세의존, 친미굴종만이 짝 들어차있는 남조선보수 집권세력에 의해 6.15시대에 활기있게 전진하던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6.15의 소중한 성취물들이 짓밟힌 쓰라린 교훈을 겨레는 지금도 잊지 않고있다.

과거의 교훈은 오늘을 위한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에 전쟁불기름을 퍼붓고리려는 트럼프에 아부굴종해보아야 얻을것은 수치이고 재난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백 명 일

반미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한 사람 같이 펼쳐나서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강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10일 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기자와의 회견에서 민족자주,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해 주장하였다.

그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열여섯었던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고 조선반도평화와 조국통일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분명하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며 그것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이야기할수 없다고 언

명하였다.

그는 북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여전하고 미국의 조선반도지배전략이 쉽게 바뀌지 않는것만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반미실천활동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단체가 자주통일운동진영과의 반미실천기구를 구성하여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고 대미예속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실천활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남조선미국관계의 불평등을 날개 하는 가장 대표적예속조약인 《호상방위조약》 폐기에 투쟁을 집중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부터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요구되는 때이다.

우리 민족이 살고있는 땅 그 어느곳에서도 반미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한사람같이 펼쳐나서야 한다.

지금 필요한것은 강력한 반미투쟁이다.

본사기자

북 남 실 무 회 담 진 행

북남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측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및 겨울철장에 자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위한 북남실무회담이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진종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통일부 차관 천해성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의 규모, 활동계획과 남측이 편의를 보장하는 문제, 현지리호를 위한 선발대과견과 관련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관계되는 문제들은 량측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하여 풀어나간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또한 1월말부터 2월초사이에 마식령스키장과 금강산에서 진행하게 되는 북남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과 북남합동문화행사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이 반영되어있다.

공동보도문에는 이밖에 겨울철장에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장애인자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파견하는것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쌍방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한다고 지적되어있다.

우리 예술단과견을 위한 북 남 실 무 회 담 진 행

우리 예술단과견을 위한 북남실무회담이 1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문화성 국장 권혁봉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성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리우성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남측지역에 파견되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보장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우리측에서 140여명으로 구

성된 예술단을 남측에 파견하여 공연을 강릉과 서울에서 진행하며 공연보장을 위한 여러가지 실무적문제들은 남측과 협의하여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어있다.

또한 우리측 현지리호대표단을 빠른 시일안에 파견하며 남측이 우리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협력당로를 통하여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 조선중앙통신 】

남 조 선 민 주 인 사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을 지킬것을 당국에 요구

남조선인테레트신문 《자주 시보》에 의하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12일 기자와의 회견에서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을 지킬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참가립장을 표명하며 통이 큰 조치를 취한 동족인 북이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 동맹으로

민족문제를 풀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실망을 금할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사실 북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연습과 장기간의 핵위협은 모두 유엔헌장에 위반되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북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한것이 북으로 하여금 자위적 핵억제력을 갖추게 한 요인으로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국이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잘살레니 미국은 떠나가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 립각하여 풀어야 하며 그러자면 당국이 《보안법》을 폐지하는것을 비롯하여 제도적, 법률적장애물들을 없애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화해와 관계개선을 추동해주는 의 의 있는 조치

아마도 겨울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절인것 같다.

하늘에서 함박눈이 펄펄 내릴 때 좋아라 뛰노는것도 아이들이요, 대소한의 강추위에 어른들이 몸을 움츠릴 때 썰매며 스키를 타러 밖으로 뛰어나가는것도 아이들이니 말이다.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눈판을 딛고며 겨울방학을 즐겁게 보내고있는 아이들을 보느라니 문득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생각하게 된다.

올림픽의 사명이 모든 대륙의 체육애호가들과 청년들의 친선과 단결, 협조를 강화하고 세계적범위에서 체육발전을 촉진시키며 세계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데 있다는것은 자라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져 우리 겨레는 오래동안 국제체육무대에서 힘을 합치지 못하고 서로 실력을 겨

루지 않으면 안되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북과 남은 뜨거운 민족애와 하나가 되려는 강렬한 지향에 기초하여 시드니올림픽경기대회 공동입장을 비롯하여 체육분야에서 화해와 협력의 좋은 모습들을 펼쳐보였다.

이 나날 우리 겨레가 가슴뜨겁게 느낀것은 조선민족은 남달리 슬기롭고 용맹하며 북과 남이 하나로 힘을 합칠 때 민족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높이 떨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조선에서 열리게 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이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관계개선을 추동해주는 의의있는 조치로 된다.

하다면 동토대나 갈았던 북남관계를 녹이며 뜻깊은 울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수 있도록 대응단을 내리신분은 과연 어느분이신가.

그 누구보다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실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하기에 지금 온 겨레가 새해를 맞으며 하신 그이의 신년사에 접하고 《김정은위원장님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해빙의 물고를 먼저 뒀다.》, 《김정은위원장이 마련해준 새해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과격》이라며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민족을 제일로 위시고 자주통일의 밝은 지평을 열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본사기자 박철남

며칠전 나는 퇴근길에 지하전동차를 타려고 영평역에 들어섰다.

역내에서 차를 기다리고있는데 어디선가 열띤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둘러보느라니 우리 예술단과견을 위한 북남실무회담이 1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소식이 실린 신문게시판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웅성이고있었다.

《우리 예술단이 남측에 가서 공연한다는구만.》 《또 온 남녘이 들썩하겠구만.》 《원수님의 신년사가 일으킨 화해의 열풍이야.》 《소중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와

야겠는데...》 이야기를 듣느라니 자연 생각이 깊어졌다.

돌아다보면 민족분렬사에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북남관계 단 상 소 중 한 기 회

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와 그에 추종한 남조선당국의 행위로 하여 수포로 돌아간것이 그 몇번인가.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소중한 이 기회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말이라면 지금도 움짱 못하는

게 문제야. 정신을 차려야겠는데...》

《글쎄말이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남조선당국자가 했다는 트럼프와의 전화통화, 자국적인 《신년기자회견》이 생각났다.

동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면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없는것이다. 북남관계는 더 꼬여지는법이고 군사적긴장도 격화될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동차가 통일열차가 되려는듯 통일소원을 가득 품은 사람들을 태운채 기운차게 출발하였다.

김영진

북남이 함께 웨친 《우리는 하나다!》

습니다. 마치 오래간만에 만나는 한식숙인듯 했습니다.

서로가 반가움과 기쁨에 손을 흔들고 인사를 나누던 그때의 나날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김은정녀성은 말하였다.

당시 공화국의 응원단이 경기대회에 온다는 소식이 남조선의 곳곳에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단을 마중하고 만나보기 위해 대구시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번에 참가한 응원단을 구경하기 위해 판문점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며 경기대회에 펼쳐진 이채로운 분위기에 대해 전하였었다.

김은정녀성은 경기대회기간 맞고 보낸 날들중에서 가장 인상깊은 추억은 대형통일기를 흔들던 때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북과 남의 통일열기를 보여주는 장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경기장에서 대형통일기가 응원자들의 머리위로 흘러가던 모습입니다.

남녘의 응원자들이 만들어 보낸 대형통일기를 우리가 받아 머리높이 흔들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웨칠 때 저도 모르게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우리의 눈앞에도 그날의 광경이 펼쳐지는

듯 하였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려는 겨레의 지향과 열망은 경기장에 뜨겁게 끓어올랐다고 한다.

북과 남의 응원단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화답하면서 퍼줄도, 언어도, 문화도 하나인 우리 민족이 둘로 될수 없는 하나임을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은정녀성은 경기대회를 마치고 자기들이 대구시를 떠나

던 날 리별의 아쉬움을 안고 통일의 날 다시 만나자고 손을 흔들며 바래워주던 남녘동포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고 하였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이 흘렀지만 북과 남이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을 부르던 소중한 추억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우리는 하나다! 돌이 되면 살수 없는, 둘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이어서 기어이 하나가 되고싶은 이 열망은 오늘도 온 겨레를 통일일로 부르르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제 집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는가

못된 대결근성은 어디 버릴데가 없는 모양이다. 공화국의 예술단파견을 위한 북남실무회담이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보수야당들이 부리는 추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북측에서 140여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남측에 파견하여 공연을 강릉과 서울에서 진행한다는 공동 보도문도 발표되어 온 겨레가 기뻐하는 속에 속이 비뚤어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올림픽이 북체제의 선전장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고 고약한 악담을 뱉쳐대었다.

실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화국이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북남대화가 련이어 열리고 있는 지금 리성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북남의 화해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보수정당들은 무엇이 못마땅하여 그따위 허튼 소리들만 계속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

속담에 남의 집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말은 있어도 제 집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말은 없다. 공화국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로 하여 평창올림픽이 더욱 빛이 나게 되었다고 한

남조선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세계 언론들의 소리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듣지 못하고 있는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귀를 막고 현실과 맞지 않고 동에 당지도 않는 허튼 소리만 쉼쳐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꼬집기를 잘하는 《자유한국당》이 고 《바른정당》인데 조선민주전체를 핵전쟁의 제물로 삼으려고 《절멸》이니 하고 부르짖고 그 준비를 다그치고 있는 강대국이 미국의 핵전쟁광풍에 대해서는 왜 못본척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노력은 깎아내리고 전쟁화염을 몰아오

는 침략적인 외세는 신주모시듯 하는 남조선보수정당들의 사고가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가 아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인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는데 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도 그같은 정신분열증에 걸렸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병원에 가서 검진받아보라고 충고주고 싶다.

남조선의 보수정당들은 공화국의 성의와 노력에 대한 험담질이 대사를 그르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들에게 어떤 후환이 차림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임무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허성철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대범한 아량과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쫓겨 얼어붙었던 북남 사이에 관계개선의 훈풍이 불고 있다. 북남관계에서 변화된 이러한 분위기는 온 겨레의 가슴을 부풀게 해주고 있다.

국제사회도 조선반도에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남조선당국자가 신년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진행하였다.

공화국이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제안을 내놓은 이후 진행되는 남조선당국자의 신년기자회견인 것으로 하여 적지 않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가 한 발언들은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만들고 아연함을 금치 못하게 했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

알려진 것처럼 남조선당국자는 신년기자회견이라는 데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된 것은 미국이 주도하

는 제재압박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노죽을 부리었다가 하면 북을 대화에 이끌어낸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어는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보조를 맞추어나갈 것이며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 북과의 관계개선은 《북핵문제》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추종할 의도도 그대로 드러냈다.

동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민족적 화해와 북남관계개선보다 동족의 무장해제를 중시하는 남조선당국자의 태도는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북

남대화라는 결과가 마치 저들 주도의 국제적 제재 압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주절대는 미국대통령에게 사실이 그렇다고 감사까지 표하면서 북남회담을 《북핵폐기》를 위한 조미회담으로 이어 놓겠다고 주절대는 이에 대한 단적증명이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듯이 지금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첫 공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때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와 진심어린 손길에 북남관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북비핵화》를 입에 올린 남조선당국의 망동은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점잖지 못한 처사가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화국이 비록 며칠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겨울철올림픽처럼 주절대는 미국대통령에게 사실이 그렇다고 감사까지 표하면서 북남회담을 《북핵폐기》를 위한 조미회담으로 이어 놓겠다고 주절대는 이에 대한 단적증명이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듯이 지금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첫 공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때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와 진심어린 손길에 북남관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북비핵화》를 입에 올린 남조선당국의 망동은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점잖지 못한 처사가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강대국가가 주도한 평화회담의 힘

취쳐대었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때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은 이번 놀음

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고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이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남조선과 추종국가들을 끌어모아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감행한 침략전쟁이었고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선민주화국살상전쟁이었다.

조선전쟁때 미국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에 가담한 추종국가들이 60여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강대국 미국 수족이 되어 국제제로행위의 공범자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앞에 최악을 덧씌우는 또 하나의 범죄로 된다.

특히 북과 남이 민족의 대사를 잘 치르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국제적음모에 가담한 것도 용납 못할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은 북남대화에 대해 길으로는 《지리지》,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북조선핵폐기》에 도움되지 않는 남북관계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을 압

력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얼마전 캐나다에서 《방쿠버외교장관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

미국 무장관의 주관하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추종국가들을 기본으로 20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북조선비핵화》를 위한 제재압박강화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이번 회의가 《해상차단조치 등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북조선은 이러한 압박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때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은 이번 놀음

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고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이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남조선과 추종국가들을 끌어모아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감행한 침략전쟁이었고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선민주화국살상전쟁이었다.

조선전쟁때 미국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에 가담한 추종국가들이 60여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강대국 미국 수족이 되어 국제제로행위의 공범자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앞에 최악을 덧씌우는 또 하나의 범죄로 된다.

특히 북과 남이 민족의 대사를 잘 치르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국제적음모에 가담한 것도 용납 못할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은 북남대화에 대해 길으로는 《지리지》,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북조선핵폐기》에 도움되지 않는 남북관계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을 압

력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때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은 이번 놀음

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고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이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남조선과 추종국가들을 끌어모아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감행한 침략전쟁이었고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선민주화국살상전쟁이었다.

조선전쟁때 미국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에 가담한 추종국가들이 60여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강대국 미국 수족이 되어 국제제로행위의 공범자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앞에 최악을 덧씌우는 또 하나의 범죄로 된다.

특히 북과 남이 민족의 대사를 잘 치르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국제적음모에 가담한 것도 용납 못할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은 북남대화에 대해 길으로는 《지리지》,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북조선핵폐기》에 도움되지 않는 남북관계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을 압

력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때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은 이번 놀음

미국의 비위를 맞추다가는...

조선반도에서 민족적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겨레의 실망을 자아내는 온당치 못한 언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외교부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미국무장관 등과 전화통화를 가지고 《남북고위급회담결과를 설명》하는 비굴한 추태를 부렸으며 《남북관계개선과 북핵문제해결의 동시추진》을 떠들면서 상전의 비위를 맞추려고 부산을 피워댔다. 이에 앞서 남조선당국자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열린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압박의 효과》라는 엉터리수작을 늘어놓았으며 《관계개선은 《북핵문제》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본사기자

며 저들의 본색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북남관계개선문제는 어떻게 되든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면 된다는 너절한 외세굴종의식의 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길으로는 북남대화에 대해 《지리지》하고 《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북과 남사이에 관계개선이 이루어질가봐 두려워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폐기에 도움되지 않는 남북관계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저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눈밖에 날가봐 겁을 먹고 화해와 단합의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외세에게 잘 보이려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여 얻을것은 화해분위기를

해치는 것뿐이다. 모처럼 화해와 관계개선의 불씨를 살리기 시작한 마당에서 외세에게 빌붙어 돌아치면서 동족을 자극하는 것은 진실로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아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동족보다 외세를 더 믿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와 공조하게 되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70여년의 민족분열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의 비위를 맞추다가는 북남관계를 바로 풀어나갈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현 은 경

를 해치는 것뿐이다. 모처럼 화해와 관계개선의 불씨를 살리기 시작한 마당에서 외세에게 빌붙어 돌아치면서 동족을 자극하는 것은 진실로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아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동족보다 외세를 더 믿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와 공조하게 되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70여년의 민족분열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의 비위를 맞추다가는 북남관계를 바로 풀어나갈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현 은 경

역적들을 미화한 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

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경남운동본부가 8일 경상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신》독재자 박정희와 박근혜역도 미화하는 전시물설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3.15민주주의 기념관에는 2015년 3월 5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박근혜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층 단체들은 2016년 12월 보훈처에 박근혜를 미화하는 전시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었다.

단체들은 공문에서

1960년의 3.15부정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각계층의 투쟁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박정희와 박근혜의 사진과 전시물들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도들의 사진은 박근혜가 란행된 후에 겨우 철거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정권》이 바뀌었다

고 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보훈처장이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 당》 내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여부를 둘러싼 계파싸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새해에 들어와 《국민의 당》내에서 통합파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협의체를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1월중으로 합당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자 반통합파의원 18명이 강하게 반발하여 새로운 개혁신당창당에 착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8일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의회 《국민의 당》 소속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

는 정치적인 명부지를 위한 가련한 몸부림

여 집단탈당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라도지역당원들의 탈당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속에 지난 12일에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국민의 당》내에서 통합파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협의체를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1월중으로 합당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자 반통합파의원 18명이 강하게 반발하여 새로운 개혁신당창당에 착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8일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의회 《국민의 당》 소속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

는 정치적인 명부지를 위한 가련한 몸부림

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살인진압의 책임을 져야 할 경찰진압책임자가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있다고 회견문이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현 남조선당국

가 진행되던 과정에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장인지 싸움마당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지 않아도 민심의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당》의 통합파들이 갈수록 더욱 해피망측한 꼴을 보이고나서니 사회적비난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물론이다.

회의장인지 싸움마당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지 않아도 민심의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당》의 통합파들이 갈수록 더욱 해피망측한 꼴을 보이고나서니 사회적비난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물론이다.

회의장인지 싸움마당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회견문은 현 남조선당국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싸움이 그칠새 없고 분열위기가 심화되는 《국민의 당》을 가리켜 망한 집안이라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위기를 크게 느낀 《국민의 당》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들은 반대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짓누르면서 어떻게 하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실현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명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안철수패들의 너절하고 가련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본사기자 김 혜 성

이 경찰들을 살인진압에 내몬 리명박역도 등 책임있는 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산참사는 물론 경찰폭력사건들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평화의 제전과 무력강소동

최근 미국이 본토에 있는 미 3사단 1명크려단을 《순환배치》의 명목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 명크려단이 남조선에 배치되는 것은 조선전쟁이후 처음이다. 한편 미국은 핵항공모함 《칼빈슨》 호타격단을 조선반도수역이 포함된 서태평양수역으로 이동시키고 전자정찰기를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에 들이밀었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핵전략폭격기들을 괄도에 전진배치하고 최신에스텔스전투기 《F-35B》가 리찰룩할수 있도록 개조된 《와스프》호를 일본 사세보미해군기지에 끌어들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에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와 진정어린 노력으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우리 민족은 물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핵전쟁에 필요한 침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것은 긴장완화

로 흐르는 조선반도정세를 또 다시 격화시키려는것으로서 도저히 용납 못할 행동이 아닐수 없다.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한다. 미국이 북남사이의 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일련의 성과들을 내놓자 앞에서는 북남대화가 잘되기를 바란다, 올림픽을 넘어 협력하기 바란다, 100% 지지한다, 북남대화기간에는 그 어떤 군사적행동도 없을것이라고 떠든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찬성한다고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 무력증강책동에 광분하는것은 미국이 진짜로 추구하는것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이고 전쟁이라는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전쟁을 예고하는 무력증강소동과 평화는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있게 될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평화와 친선을 도모하는 국제체육경기로서 무력증강소동과는 인연이 없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겨레와 세계는 미국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평화분위기를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의 속심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안과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 침예한 군사적긴장이 떠돌던 조선반도에 모처럼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지금 조성된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두고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모두 환영하며 기뻐하고있는 때에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이를 대하는 나라가 있다. 미국이 바로 그러하다.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저들주도의 대조선제재와 압박을 무뎠게 만드는 회담은 안된다, 북남관계개선은 《북핵문제》해결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별도로 추진될수 없다는 등 시작부터 남조선당국에 가시돌린 협박을 해왔다.

그런가 하면 여러차례의 올림픽에 북남이 공동입장하였지만 그것이 결국 북조선의 핵정책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조선이 핵과 란도미사일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것이라고 뇌까리며 북과 남의 화해기류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사람의 속내는 말보다 행동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했다.

앞에서는 북과 남이 잘되기를 바란다, 올림픽을 넘어 협력하기 바란다, 100% 지지한다, 북남대화기간에는 그 어떤 군사적행동도 없을것이라고 흰소리를 쳐놓고 뒤에서는 북남관계개선에 훼방을 놓면서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는 미국의 움직임은 그들의 검은 속심, 고약한 심보를 잘 보여주었고있다.

미국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해놓고 그뒤에서 미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고있다. 게다가 항공모함과 맞먹는 3개의 상륙직승기모함들까지 술한 해병대무리를 싣고 기여들 차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한편 미군부는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도 트럼프정부의 대조선선제공격작전계획인 《코퍼작전》 방안을 은밀히 준비하고있다고 한다.

이런 준비가 미국본토의 산악보병사단들에서, 남조선의 오산, 군산기지에 투입한 특수작전부대들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은 무엇을 시사하고있는가.

에당초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사실 전쟁과 침략으로 살아가는 미국에 있어서 평화로운 세계는 참수수 없는 고통일것이다. 지금껏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격화시키고 불안과 혼란을 조성해온것은 그렇게 하여야 남조선을 공화국과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계속 타고 앉아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할수 있으며 막대한

군사장비를 손아래 《동맹자》들과 지역나라들에 팔아 《안보장사》로 배도 불리울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대세를 거스르다가는 감당할수 없는 치명적 후과가 차레지기마련이다.

평화와 친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올림픽경기대회마당에 화염을 퍼우려는 어리석은 망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지에 대해 미국은 심사숙고해보아야 한다. 더우기 지금 온 세계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흐름과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가 좋게 이어지기를 바라고있다. 이러한 때 그것을 깨뜨리려는 불순한 행위는 세계앞에 미국이 야말로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 평화의 파괴자,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가로막는 원흉이라는것을 더욱 부각시킬뿐이다.

심술꾸러기는 고약한 자기 심보때문에 망한다는것을 미국은 다시금 새겨보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지금 온 세상의 이목이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화해와 협력, 관계개선의 따뜻한 분위기가 모처럼 마련되고있는 조선반도에 쏠리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에 뜻밖에도 펼쳐진 정세변화국면에 온 세계가 지지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때에 미국과 함께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갖은 훼방을 놓고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섬나라 일본이다.

최근 일본의 상고노, 내각관방장관 스가, 방위상 오노데라를 비롯한 현 일본집권세력은 북조선의 올림픽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로 되어서는 안된다, 남조선, 미국과의 련대밀에 최대의 압박을 가해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기존정책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췌쳐대면서 북남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유럽의 6개 나라들을

행각한 아베는 《북조선은 유럽전체를 위협하고있다.》고 고아대면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박강화를 요청하며 돌아섰다.

뿐만아니라 조선반도전쟁림박설을 내돌리면서 긴장격화를 유도해보려고 미친듯이 놀아대고있다.

《아사히신봉》, 《요미우리신봉》을 비롯한 일본언론들은

은 최근 아베정부가 조선반도 유사시 해상 《자위대》를 투입하여 남조선주둔 미군과의 협동작전으로 남조선에 거주해있는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대마도로 피신시켰다가 본국에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중이라고 하면서 각종 전쟁위협설까지 퍼뜨리고있다.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고 그것을 훼방하지 못해 속달이 나하는 섬나라족속들의 체질적악습은 역시 어디 갈데 없다.

력대로 일본은 조선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을 경계하면서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책동해왔다.

일본은 북남관계가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게 되면 《북도발》을 구실로 저들이 추구하는 해외팽창야망이 물거품이 된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를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해왔으며 지금도 남의 대사에 재를 뿌리려고 고약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을 더욱 폭발시키게 된다는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지금도 우리 민족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에 대해 하나도 잊지 않고있다. 사무친 원한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을 상대로 일본이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계속 덧쌓으려 한다면 그로 하여 차레질것은 저들의 비참한 운명뿐이다.



반미시위에 나선 팔레스티나인민들

정치난쟁이의 훼방질

아베일당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정책을 변경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대변인은 일본의 아베일당이 반공화국제재 압박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일부 유럽나라들을 행각한 일본수상 아베가 이 나라들과 쌍무관계를 협의하는 기회에 매번 우리의 《핵, 미사일개발》과 랍치문제를 거들며 이 나라들을 반공화국압박공조에 끌어넣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아베는 《북조선이 월뉴스와 베오그라드도 사거리에 넣을수 있는 란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유럽전체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이다.》, 《최대한의 압력을 통해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외상 고노도 아랍장주국과 캐나다를 돌아치면서 《북조선

이 핵, 미사일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시간별이를 하고있다.》, 《북조선의 《미소외교》에 헛는 팔아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외교관계단절 등 압력을 선포하였다.

아베일당이 우리의 자위적책역제력을 걸고들며 반공화국압력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국내에서 《국난》을 조작하여 온 일본땅을 공포분위기에 몰아넣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현행헌법을 개악하여 일본을 전정할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아베가 유럽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을 집요하게 쇄고한것은 저들의 위협천만만 목적실현을 위해 얼마나 환장이 되어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압력을 강화하면 우리가 정책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자체가 한나라 수상으로서는 너무도 어리석고 유치한 사고

방식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아베일당이 넘불쳐림 위위대는 랍치문제에 대하여 구태여 말한다면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미 해결된 문제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랍치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는것은 장기집권을 노린 기만극에 불과하며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기필코 아베일당이 지게 될것이다.

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을 강제 랍치하여 갖은 정신육체적고통을 들쭉운 반인륜적범죄에 대해서는 청산하지 않고 죄를 덧쌓을수록 일본에 안길 우리의 매도 더 커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베일당은 누워서 침뱉는 격의 놀음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정책을 변경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국제문제 악화되는 파키스탄과 미국과의 관계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에 대한 인류의 지향과 갈망이 새해에 들어와 더욱 강렬해지고있는 속에 나라들 호상간에 신뢰하고 협조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과 미국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첨예화되고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1월 4일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추가로 중단한다는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리유인즉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내 탈리반세력척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

앞서 새해정초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에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난 15년간 파키스탄에 330억US\$가 넘는 원조를 했으나 그들은 우리 지도자들을 바보로 여기며 거짓말과 기만밖에 준것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거리한북판에 떨어진 시한탄파도 같은 이 말에 파키스탄정부와 인민이 강한 불신과 배신감을 느낀것은 물론이다.

파키스탄총리가 주재한 국가안보위원회는 즉시 《파키스탄의 희생을 부정하는 미국지도부의 최근 언급을 리해할수 없다.》는 성명을 냈고 장관들도 저마다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력사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

라고 가르쳤다.》는 글을 3일 자기의 트위터에 올렸고 내무장관도 같은날 어느 한 연설에서 《파키스탄은 미국의 정책 때문에 벌어진 결과를 극복하고자 여전히 허덕이고있다.》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치른 희생을 조 통한 미국대통령을 비난했다.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어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조중단을 내세워 파키스탄에 지시하는것은 더는 불가능하다.》, 《미국과 파키스탄의 협력은 거의 끝났다.》고 더욱 강경한 립장을 표명했고 파키스탄 군홍보기구 책임자도 《만약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해 제재를 한다면 파키스탄국민의 열망에 따라 대응할것》이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2일 파키스탄남부 카라치에서는 수많은 인민들이 거리에 떨쳐나와 성조기를 불태우며 반미시위를 하였다. 파키스탄정부와 인민의 이러한 립장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2001년 9.11사건이후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파키스탄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미국은 이전의 경제제재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어쩐다 하며 이 나라를 끌어당겼고 저들의 리익실현에 돌격대처림 써먹었다.

이번에 파키스탄 외무장관도 증언한것처럼 미군은 파키스탄기지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5만 7 800차례

의 공격을 했고 파키스탄땅에서 무기와 폭탄을 공급받았다. 이 전쟁과정에서 파키스탄이 당한 인적, 물질피해도 매우 컸다고 한다.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파키스탄에서는 미군의 무인기공격으로 8년동안에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1 900~3 200여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들 대부분이 어린이들과 녀성들이다.

파키스탄의 수많은 군인파 민간인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고 미국을 위해 일한 결과 이 나라가 가스과 전기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대해서 외신들도 보도한바가 있다.

결국 저들에게 필요할 때 팔라몽치를 휘두르며 온갖 강권을 다해 써먹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짓누르거나 리용가치와 리익금을 철저히 따져 동맹관계도 서슴없이 집어던지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속심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미국이 떠드는 동맹관계발전과 관계개선, 원조 등은 한갓 기만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을 지금의 파키스탄—미국관계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강권과 전횡을 막지 않고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평등과 호혜를 실현할수 없다는데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 철 민

온 나라에 차넘치는 대중체육열기

올해 겨울은 류달리 춥다. 지속되는 강추위로 강산이 쫄쫄 얼어붙은 속에서도 대중체육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겨울철이건만 도처에 홀로 일떠선 체육관, 체육공원들과 기관, 기업소마다 특색있게 꾸려놓은 체육시설들에서 일어번지는 체육열기는 계절을 모른다. 휴식일이나 여가시간이면 남녀로소 누구나 떨쳐나 추운 날씨와는 무관하게 공원들이나 체육시설들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승벽내기로 탁구와 배구, 정구같은 체육경기들을 진행하고있다.

양한 체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해가는 근로자들이 어디에서나 희열과 자랑으로 뿜어번지고있다. 대중체육열기가 날을 따라 활기를 띠고 그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체육기술을 련마하느라 겨울철에도 땀흘려 훈련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이제는 직장에서도 가정들에서 대중체육활동을 떠난 사람들의 로동과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게 되었다. 지난 1월 14일은 새해 첫 체육의 날이다.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 중앙기관일꾼들은 뜻 깊은 올해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 장, 평양326전선공장,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었다. 시안의 각 구역, 동인민반들에서도 배구와 탁구 등 체육경기들과 윗놀이, 장기 등으로 이날을 흥겹게 보냈다. 각 도, 시, 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여러가지 대중체육활동으로 새해 첫 체육의 날을 이채롭게 하였다. 땀을 흘리며 대중체육활동에 여념이 없는 각지 사람들의 한껏 달아오른 체육열기는 한겨울의 추위도 잊게 하였다.

본사기자



백화술은 말그대로 백 가지 꽃으로 만든 술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병치료와 예방에 널리 이용하여온 전통음료이다.

백화술에는 천연꽃의 색과 향기, 맛이 그대로 담겨있는데 질은 적황색의 색깔과 아름다운 향기, 약간한 단맛, 미묘하게 뒤따르는 씹쓸한 맛은 매우 독특하다.

국가민중질문회요산

백화술의 양조방법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의학교전문헌인 《동의보감》에는 백화술을 가리켜 늙지도, 병들지도 않게 하고 오래 살게 하는 약재라고 기록하고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 《암록강의 노래》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여 한 녀인이 정히 울

린 백화주를 회고하시면서 백화주란 백가지 꽃으로 만든 술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의과학원 환경위생연구소에서 진행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백화술에는 비타민B군과 필수미량원소들인 철, 동, 니켈, 망

간 등 각종 성분들이 들어있다. 꽃은 천연색소 그 자체가 생리활성물질로서 항염증작용, 피만들기작용을 비롯한 많은 인체기능 조절작용을 하는데 자연계에서 이 물질들은 유기상태로가 아니라 비타민무리들과 결합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주목되는것은 꽃의 주요구성성분인 꽃가

루에는 필수미량원소들과 비타민, 핵산, 조지방, 탄수화물 등이 풍부히 들어있어 고급식품으로 알려진 왕벌젖이나 소고기, 빠다, 치즈보다 영양소가 4~5배나 더 많은것이다.

백화술양조방법에서 기본은 주원료가 일반식물이 아니라 약용식물의 꽃으로 규정되

고있는것이며 술의 색과 향기, 맛, 효능을 조절하는 각이한 배합비가 있다는것이다.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백화술은 자기 고유의 맛과 향기, 우수한 약효를 가진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 더욱 빛나게 되었으며 오늘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로부러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겨울철 감기방지를 위해

호흡기계의 첫 방어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입이나 목구멍으로 잘못 알고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주의가 미치지 않는 코가 첫 방어선이다.

사람의 호흡기계통은 자체의 완벽한 면역기능을 가지고있다. 호흡기계통의 입구라고 할수 있는 코는 자체조절능력이 대단하다고 할수 있다.

코털과 점액은 기관지로 들어오는 공기속의 세균과 병균을 비롯한 미생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코가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것은 호흡기

계통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련관된다.

겨울철 호흡기계통질환을 예방하자면 방안습도를 약간 높이는것이 좋다. 연구에 의하면 방안의 습도가 40%이하이면 호흡기계통의 항균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먼지나 세균을 들이마시면 인차 호흡기계통질환에 걸리게 된다.

더운 음료를 자주 마셔도 몸이 불편한 감을 없앨수 있다.

그것은 더운 음료의 향과 수증기가 타액을 비롯한 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호흡기계통이 건조해지는것을 방지하여 병균의

력을 높여주기때문이다.

겨울철에는 홍차, 룩차, 레몬수 등을 마시는것이 좋다. 음료가 뜨거울때 잔에서 주먹 하나 떨어진 위치에 코를 대고 수증기를 들이마시다가 음료는 식은 다음에 마시면 좋다. 이렇게 하면 병균과 세균을 막을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룩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류행성감기비루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고 코안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본사기자

어느날 리항복이 소풍을 할겸 거리에 나갔다가 시장에 들렀다.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구석에 닭알꾸레미를 펼쳐놓고 꾸구리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멍청하니 쳐다만 보고있는 좀 부실해보이는 한 닭알

장사군에게로 다가갔다. 《수닭이 낳은 알을 열

유모아

수닭이 낳은 알

알 사겠소. 《아니, 수닭알이라니, 처음 듣는 말인데요...》

어리둥절해진 장사군의 말이였다.

《그럼 내가 고르지요.》 항복은 제일 크고 충실하게 생긴 닭알 열알을 플라꾸레미에 담으며 말하였다. 《수닭이 낳은 알은 언제나 이렇게 크답니다.》

단편소설

여울물소리 (5)

글 현명수, 그림 박봉혁

석진에게 련정을 품은 술한 처녀들속에는 흑카이도지사의 딸 유끼꼬도 있었다. 아침이면 눈같이 하얀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그 유끼꼬가 석진에게 청혼을 하였다든 소문도 쉬쉬하며 돌아갔다. 유진은 그 소문에 귀가 솔깃하여 석진에게 직접 물어보았었는데 그때 석진은 《유끼꼬는 참 괜찮은 처녀지. 똑똑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허나 그는 일본나라가 아닌가!》 하고 대답하였다. 그후 석진은 항상 까만 조선치마고 리를 입고 다니는 음식가게집 딸을 일생의 반려로 정한것이였다.

석진에게 련정을 품은 술한 처녀들속에는 흑카이도지사의 딸 유끼꼬도 있었다. 아침이면 눈같이 하얀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그 유끼꼬가 석진에게 청혼을 하였다든 소문도 쉬쉬하며 돌아갔다. 유진은 그 소문에 귀가 솔깃하여 석진에게 직접 물어보았었는데 그때 석진은 《유끼꼬는 참 괜찮은 처녀지. 똑똑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허나 그는 일본나라가 아닌가!》 하고 대답하였다. 그후 석진은 항상 까만 조선치마고 리를 입고 다니는 음식가게집 딸을 일생의 반려로 정한것이였다.

자를 하였는데 그의 대리인은 모든것을 걸어안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춘것이였다. 결국 장인은 철공소도 잃고 빗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런 그를 찾아온 한 사람이 울산의 어느 회사를 찾아가면 그 회사에서 약차한 선불금을 내준다는것이였다. 죽을수가 생기면 살수가 생긴다고 장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수 없었다. 더우기 남조선의 울산은 장인의 고향이였다. 짐승도 죽을 때는 제 굴을 향해 돌아놓는다는데 환갑을 바라보는 장인으로서 고향에만 돌아가면 뼈를 깎아서라도 빛을 물것 같았다. 또 선산에 묻히고싶던 평생의 소망도 자연 풀리는셈이였다. 장인은 남편과 아버지를 번갈아보며 어찌할바를 몰라 한숨만 쉴는 딸의 어

를 쓰다듬으며 말하였다. 《숙향아, 예로부터 너 필종부라 했느니라. 네 남편이 북으로 귀향할 결심이라니 너도 따라가거라. 아무렴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쓸겠니? 쥐구멍에도 벌들 날이 있느니라. 참고 견디느니라. 조국땅의 허리를 가로지른 저 분령의 철조망도 걸릴게고...》



그럼 우리 다시 모여 살자꾸나.》 장인에게는 숙향이 하나밖에 없는 혈통이였다. 당장 일본땅에서 생리별을 당할 판이였다. 헌데 석진의 결혼퍼로연에 초

청받고 오던 유진은 검은 안경을 낀 한 사나이와 만났다. 그 사나이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울산의 회사에서 장인에게 선불금을 주기로 한것은 어떤 호의에서가 아니라 유진 자신 유진이가 그 회사에 입직하는 조건부를 내걸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장인은 그에게

것이였다. 유진은 자기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는 장인의 회생적인 사랑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한편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에게는 장래를 특 털어놓고 의논할 사람조차 없었다. 새 삶의 회열로 가득찬 석진의 가슴속에 재를 뿌릴수도 없었다. 장인은 유진에게 있어 친아버지나 다름없는분이였다.

그는 유진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고 삶의 첫 보금자리도 꾸려주었다. 예로부터 결혼보은이라는 말이 있듯이 죽은 후에 넘어가도 남는다면 그것을 장인을 위해 강그리 바치고싶은 그였던지라 유진은 장인의 딱한 처지를 외면할수 없었다.

결국 유진은 석진의 생활에로의 출발을 축하하는 축배잔을 들면서 피눈물의 결단을 내렸던것이다. 만일 이것을 모르고 홀 일분땅을 떠났더라면... 아나밖에 없는 혈통이였다. 장인은 재판에 회부될것 이였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인생을 마무리짓게 될

그 이튿날 유진은 야밤삼경에 가족을 데리고 니이가 다항으로가 아니라 시모노세기로 떠나게 되었다.

울산으로 온 유진은 유전학연구사가 되었다. 회사에서 준 선불금으로 장인의 빚을 물어주었고 새살림을 차릴 주력도 세낼수 있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일본말과 일본노래를 듣지 않게 된것만으로도 유진은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혈육같았고 각듯이 인사를 하는 연구실의 동업자들도 마치 오래동안 정을 나뉘었던 벗들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안도감은 몇달이 지나 아지랑이처럼 사라져가고있었다.

유진은 언제부터인가 자기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상한 사나이들을 발견한것이였다. 하루, 이틀... 그것이 한달이 지나도록 계속되자 그는 사장을 찾아가 진소하였다. 사장은 어디엔가 전화를 걸고나서 그에게 말하였다.